



불서 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한산시(寒山詩)

한산·공간·습득 지음, 김달진 옮김 | 문학동네 | 2001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김영래 연구교수

### “대자유인의 탕탕한 삶 배워”

내가 삶에 대한 의문을 처음 갖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다. 한번은 혼자서 북한산성에 갔었는데, 산등성이를 오르다가 좀 아래쪽 계곡에서 청춘남들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옆의 바위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기도 하면

“푸른 시대에 샘물은 맑고/ 차가운 산에는 달빛이 밝다/ 가만히 앉아서 정신이 절로 밝고/ 공(空)을 관(觀)함에 경(境)은 더욱 고요하다.”

“공간”은 국청사 스님인데 ‘한산’, ‘습득’이 도인임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한번은 ‘한산’과 ‘습득’이 길에서 ‘공간’을 만났는데, “스님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간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한산’이 말하기를 “그러니 스님은 우리의 도반이 못되십니까!” 했다고 한다.



### 만족한 삶을 위한 방법 찾던 중 만나 시 한수한수가 청량제처럼 마음 씻어

“우리 집에 굴이 하나 있으니/ 이 굴속

에는 아무 것 없네/ 깨끗하고 비어 당당하며/ 밝기는 대낮보다 더 밝네/ 나물밥으로 약한 몸을 기르고/ 누더기 옷으로 환(幻)의 물질들 가리나니/ 일한 성인이 나타나건 말건/ 내게는 원래 천진(天真)부처 있어라.”

그러나 인정이 다하지 않았으니 어찌 시름이 없겠는가. “흰 구름 높은 산에 걸려있고/ 푸른 물은 맑은 못에 출렁인다/ 그 가운데 이따금씩 고기잡는 어부들/ 돛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나니/ 구슬픈 그 소리 차마 듣지 못하네/ 가끔이나 시름에 겨운 내 마음/ 누가 일러 참새를 쫓아 없애 하시고/ 저 지붕 추녀를 뚫지 않는가.”

끝으로 후세에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남긴 당부는 이렇다. “내 알리노니 도를 닦는 이들이여/ 밖으로 구해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사람에게는 정령(精靈)한 한 물건이 있어/ 글자도 무늬도 없네/ 부를 때에는 분명히 응하건만/ 숨어 있다 해도 있는 곳 또한 없네/ 친절하고 알뜰히 잘 보호해/ 얼룩이 나 현대가 지지 않도록 하라.”



## “콘텐츠로써의 불교 담아내려 애쓸것”

다할미디어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 문화콘텐츠와 불교의 만남 사회속에서 문화 전달하고자

사회에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인식될 때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불교 안에는 ‘스님’이라는 특화된 존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 의식·음악·미술 등이 그 나름대로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로서의 불교도 매력적이지만 ‘전통’이라는 이름과 맞물려 조화를 이뤄내는 불교도 아름답다. 이런 불교의 가치를 제대로 발굴하고 책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도 의미 있을 터다. ‘다할미디어대표 김영애, 이하 다할미디어’는 바로 이런 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다. 3월 18일, 다할미디어를 찾아 서울 논현동으로 출발했다.

다할미디어는 불서전문출판사가 아니다. 그러나 김영애 대표가 이끌고 있는 ‘정신’에는 분명 불교적 요소가 들어 있다.

“한국문화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문화에서 불교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정신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걸요. 그 불교문화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매개체가 저는 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는 너무 식상한데, 다할미디어를 찾아오는 생각도 결국 그런 것은 아닐까 싶었다.

“절에 갈 때마다, 저는 이 좋은 콘텐츠들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불교적·한국적인 것을 무작정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고유 가치를 찾아내자는 것입

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작업에 너무 무심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책이 근간 <나의 행자시절>이다. 이 책은 저자 박원자씨가 월간 <해인>지에 12년간 연재한 것을 묶어 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결국 이 시대에 주목받는 것은 ‘사람이야기’인데 이 책에서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스님들의 인간사를 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스님들의 어린 시절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선사들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은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삶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독자들에게 은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대중에게 통한 결과인지 <나의 행자시절>은 현재 대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다할미디어에서는 그 동안 55종의 책을 만들어 냈다. 2000년에 설립된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다. 하지만 지난해 무려 12종의 도서를 출간했다. 이 중 6~7종이 불서거나 불자가 저자인 책이다. 이전에는 어떤 불서를 만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등 미술을 다룬 책이 많다. 그 까닭은 김 대표 자신에게 있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특히 7~8세기 동양불교미술사를 전공한 것이다. 그 때 화엄사상을 공부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불교의 매력에 푹 빠졌단다. 가톨릭에서 불교로 개종을 했던 것도 그 즈음이었다고.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을 했

을 때 세계 불교 서적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불연(佛緣)이 적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 대표는 참 의욕적인 CEO다. 출판팀 흥영기 팀장도 “직원들이 대표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며 웃는다. 인생도 적극적이다. 뭐든 보고 듣기 위해 여행을 자주 떠난다. 그러면서 해외 각지에서 사 모은 이미지와 캐릭터 상품들을 보고 연구한다. 한국적인 것은 무엇일까, 불교 이미지를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또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그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다.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 결국 ‘출판에 충실하자’는 결론이 나오더군요. 역시 텍스트가 제대로 갖춰져야 이미지를 통해 여러 가지 콘텐츠를 재생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할미디어에서는 출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및 콘텐츠 사업도 충실히 기획하고 있다. 즉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효과적인 매체를 이용해 제대로 된 한국·불교문화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다할미디어는 지금까지 본 출판사와는 분위기가 사업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더 넓은 사회를 보면서 그 사회 속에서 우리문화의 가치를 오히려 전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업성과를 이뤄낸다면 우리문화, 불교문화의 부가가치가 확인되는 셈이다.

“종교적인 색채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접근시킬 것인가가 사실 가장 큰 관건입니다. 불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불교문화는 대중화되어야 합니다. 그런 대중화된 콘텐츠를 다시 세계화 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가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년도
1	나의 행자시절~3	박원자	2001
2	다섯빛깔 풍화와 흰색 거대	최태만 글, 신장식 그림	2007
3	아래 절에 불상이 없네	윤범모	2004
4	절 안의 생활, 절 속의 문화재	김영애	2000
5	인도미술사	미야지 아키라 지음, 김형숙·고정은 역	2006
6	중국불교사	마쓰창 외 지음, 임은경 역	2006
7	산사에도 그림이 있었네	이승수 편역	2002
8	짙있는 스님이야기	현진 스님	2001
9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지안	2002
10	구수한 큰맛	고유성 지음, 진홍섭 역음	2005
11	화가 나혜석의 고백 - 첫사랑 무명으로 신혼여행을 가다	윤범모	2007

##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 카이로프락틱 · 전생 · 빙의 치유법

## 지도자 모집

**교과목**

- 카이로프락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 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 · 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기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 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 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남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 빛이 율동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간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정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등, 영가위패**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적 퍼냄1만원